

가치사슬 모형을 이용한 자원별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진백*

A Study on Activating Blue Tourism by Value Chain Model

Kim, Jin - Baek

< 목 차 >

I. 서론	2. 어촌관광 가치사슬 모형을 통한 어촌 관광의 제문제
II.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촌관광	3. 자원별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1. 어촌사회의 실태	IV. 결 론
2. 어촌관광자원의 분류 및 실태	참고문헌
III. 관광 가치사슬 모형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Abstract
1. 관광 가치사슬	

1. 서 론

최근 들어 어촌은 어업을 주요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라기보다는 낙후되고 생활환경이 불편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어촌이 생활근거지로서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촌이 과거처럼 생활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촌사회가 안고 있는 제문제점들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해결대안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각 산업별로 농업은 농촌관광, 임업은 산촌관광, 어업은 어촌관광이란 용어로서 관광에 대한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형태들이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이 되기 위해서는 관광 세부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적 문제와 정보를 필요로 한다(Buckley, 1996). 그러나 아직 어촌관광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관광들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려는 접근이 미진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관광 동기부여이론들에 의하면 관광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휴가 욕구(desire)에 관한 필요(needs), 동기(motives), 추진력(drives)으로 구성된 푸쉬요인

접수 : 2003년 2월 24일 게재확정 : 2003년 4월 15일

* 동명정보대학교 정보경영사회학부 조교수, jinkim@tit.ac.kr

(push factor)과 목적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advertising), 목적지(destinations),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 풀요인(pull factor)이 있다(Crompton, 1979). 푸쉬요인은 소비자의 의향(disposition)이며, 풀요인은 마케팅 자극(stimuli)이다. 따라서 풀요인은 푸쉬요인의 동기를 강화(reinforce)시켜준다(Dann, 1981). 그리고 풀요인과 푸쉬요인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감정(emotion)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연결되므로 관광객은 감정적 필요에 의해 푸쉬되고 감정적 이익(benefits)에 의해 풀된다(Goossens, 2000).

따라서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관광공급자의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풀요인인 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즉, 어촌관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기반이 되는 어촌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실태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촌관광의 활성화 목적이 어업에 대한 대체소득원의 개발이라고 한다면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가치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가치사슬 모형을 이용해서 어촌관광 가치활동을 식별한 후, 자원별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따라 먼저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어촌사회의 문제점과 어촌관광자원의 분류 및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가치사슬 분석도구를 이용해서 어촌관광의 가치활동들을 살펴보고 현재 어촌관광에서의 문제점을 어촌관광자원의 분류체계를 토대로 파악한 뒤 어촌관광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러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어촌사회의 실태 및 어촌관광

1. 어촌사회의 실태

1) 어촌사회의 제문제

현재 어촌이 안고 있는 제문제점들은 크게 경제·사회 등의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어촌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대적 소득수준의 하락이다. 어촌은 과거에 비해 도농가에 대한 상대적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에는 어촌이 도시나 농촌의 가구보다 평균소득이 높았으나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소득의 증가율이 낮아져 역전되었다. 그 뒤 1980년대에는 소득간의 차이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1990년대 말로 갈수록 심화되어 2000년대 현재에는 도시근로자에 비해 어가소득은 평균적으로 70%도 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몇년 사이 여러 가지 국제기구로부터의 규제에 의해 어촌의 경제적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1994년부터 UN 해양법 협약에 따른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발효, WTO 및 APEC 등의 수산보조금 감축·폐지 요구 강화, OECD 수산위원회의 “책임있는 어업규범(The Code of Conduct for Responsible

Fisheries)”에 대한 수용 권고, 그리고 최근 중국 등으로부터의 수입수산물 증대 등으로 인해 어촌의 소득수준은 보다 하락하고 있다. 게다가 향후에는 간접적인 방법보다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어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TAC(total allowable catch) 제도가 확대 추진 될 가능성이 있어 어촌의 경제적 사정은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표 1〉 도농어촌간의 소득 비교

연 도	소득 금액 (천원)			어가소득 수준(%)	
	어가소득(A)	농가소득(B)	도시근로자(C)	A/B	A/C
1973	529	481	485	110.0	109.1
1976	1,059	1,156	1,059	91.6	100.0
1979	1,923	2,227	2,337	86.3	82.3
'70년대 평균	1,170	1,288	1,293.67	96.0	97.1
1983	4,109	5,128	4,368	80.1	94.1
1986	5,402	5,995	5,772	90.1	93.6
1989	8,079	9,437	9,659	85.6	83.6
'80년대 평균	5,863	6,853	6,600	85.3	90.4
1993	14,432	16,928	17,734	85.3	81.4
1996	19,039	23,298	25,832	81.7	73.7
1999	18,428	22,323	26,696	82.6	69.0
'90년대 평균	17,300	20,850	23,421	83.2	74.7
2000	18,875	23,072	28,643	81.8	65.9
2001	22,252	23,907	31,501	93.1	70.6
2000년대 평균	20,561	23,490	30,072	87.5	68.3

자료 : 통계청

주 : 도시근로자 소득은 자가 평가액 제외

사회적 측면에서 어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어촌인구의 노령화와 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최근 10여년간 어촌의 인구분포를 보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보다는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인구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1991~2000) 산업별 55세 이상 취업자 구성비에서도 전산업 평균은 15.4%, 제조업은 7.2%이나 농림어업은 52.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젊은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서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어촌상황이 지속된다면, 어촌의 안정적 노동력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

또한 어촌인구의 절대수치가 줄어들고 있어 어촌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통계에 따르면 1985년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4.6%였

1) 어촌의 여성인구 비율은 2001년 기준으로 농가(51.6%)보다도 낮은 50.1%로서 노동력 공급의 내용적 측면은 양호한 상태임.

으나 2000년에는 19.0%로 크게 감소하였다(조진훈, 2002). 따라서 도시지역은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거주함으로써 과밀화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어촌은 공동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표 2〉 연령별 어촌인구 분포(단위 : 천명)

구 간	연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15~19세	인구수	54	42	34	33	27	17
	비 율	15.2	13.0	11.9	11.9	10.2	8.1
20~29세	인구수	53	36	37	30	31	20
	비 율	14.7	11.3	12.6	10.8	11.3	9.8
30~39세	인구수	59	51	41	34	32	21
	비 율	16.4	15.8	14.1	12.4	11.9	10.5
40~49세	인구수	66	59	56	53	52	41
	비 율	18.5	18.5	19.5	19.2	19.1	20.1
50~59세	인구수	71	69	62	62	59	46
	비 율	19.7	21.6	21.5	22.3	22.0	22.5
60~69세	인구수	35	41	39	44	46	41
	비 율	9.9	12.7	13.6	15.8	16.8	20.0
70세 이상	인구수	20	23	19	21	24	18
	비 율	5.5	7.1	6.7	7.6	8.7	9.0

자료 : 통계청

2) 어촌사회 개발사업의 제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어촌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어촌사회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어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은 주로 해양수산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 등에서도 어촌에 관련된 다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어촌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환경부, 어촌관광과 관련해서는 문화관광부 등에서도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어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사업들중 어촌관광에 관련된 어촌사회 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약 5개 사업에 2001년까지 3,283억원의 재원이 투자되어 298개의 지역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향후 5년 이내에 투자될 금액까지 합하면 약 5,800억원 정도가 어촌사회 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²⁾.

2) 어촌종합 개발사업의 예산중 약 34% 정도가 어촌관광개발과 관련됨.

〈표 3〉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어촌관광 관련 개발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2001년 이전	2002년 이후	투자개소
어촌관광 개발사업(1990 ~1996 년)	61억원	중단	67개소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1998-2001)	30억원	중단	2개소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1998-2008)	90억원	180억원	9개소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2002-2008)		150억원	60개소
어촌종합 개발사업(1994-2004)	3,102억원	2,149억원	160개소
합 계	3,283억원	2,479억원	298개소

행정자치부에서는 도서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패키지마을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림부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암반지하수개발사업,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지방상수도개발사업, 면단위하수처리시설사업, 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즉, 정주기반확립과 낙후지역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은 주로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은 주로 환경부 등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정어항개발사업, 소규모항포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어 실제 어촌개발에 투자되는 금액은 더욱 크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어촌사회 개발사업들은 투자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홍보시스템이 미흡하고,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어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 규정과 근거법의 불일치, 바다부분에 대한 면적 개념의 불명확, 중복지정시 용자액의 차등화 미반영, 개발 기본계획의 사전 수립 미흡, 국고 용자금 부족, 높은 이자율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윤상호, 2000). 따라서 보다 효과적 어촌사회 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행정부서들간의 효과적인 연계지원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의 어촌개발사업이 많은 금액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적은 근거를 어가소득 유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어가의 소득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주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어업소득은 1990년대 중후반 잠시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며, 어업 외 소득은 1990년대 중후반 잠시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나 과거처럼 높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각종 연금 및 가족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이전수입은 1990년대 중후반 잠시 하락 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는 현재 어촌의 경우, 노동에 의한 수입이 줄고 비노동에 의한 수입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노동 수입의 증가는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동안의 어촌개발사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어촌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4〉 어가의 소득유형별 비교(단위 : 천원)

연 도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어 가 소 득		11,309	14,432	18,780	20,331	18,428	22,252
어 업 소 득		5,285 (46.7%)	6,222 (43.1%)	9,437 (50.3%)	11,768 (57.9%)	10,323 (56.0%)	11,087 (49.8%)
어 업 외 소 득	소 계	3,776 (33.4%)	4,684 (32.5%)	6,075 (32.3%)	5,820 (28.6%)	4,882 (26.5%)	6,504 (29.2%)
	농 업 소 득	2,066 (18.3%)	2,001 (13.9%)	3,185 (17.0%)	2,761 (13.6%)	2,557 (13.9%)	2,757 (12.4%)
	기 타 겸 업 소 득	365 (3.2%)	582 (4.0%)	791 (4.2%)	1,061 (5.2%)	697 (3.8%)	1,083 (4.9%)
	사 업 외 소 득	1,345 (11.9%)	2,101 (14.6%)	2,100 (11.2%)	1,998 (9.8%)	1,629 (8.8%)	2,664 (12.0%)
이 전 수 입		2,248 (19.9%)	3,525 (24.4%)	3,268 (17.4%)	2,743 (13.5%)	3,223 (17.5%)	4,661 (20.9%)

2. 어촌관광자원의 분류 및 실태

1) 어촌관광자원의 분류체계

McIntosh & Goeldner(1991)는 관광자원을 관광공급요소별 기준에 따라 자연자원, 기반시설, 교통수단, 문화자원 등으로 나누었다. 강신겸·김현주(1999)는 관광자원을 H/W 및 S/W로 구분하고, H/W적 관광자원으로는 도로,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호텔, 식당, 주차장 등 관광객 이용시설(suprastructure)로 세분하였다. 반면 S/W적 관광자원은 상품 S/W, 운영 S/W, 정보 S/W, 제도 S/W 등으로 세분하였다. 오익근(1997)은 관광자원을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대구관광개발기획단(1996)은 관광자원을 종교관광, 역사/문화관광, 스포츠관광, 산업관광, 위락/휴양관광, 산악탐방관광, 쇼핑/식도락관광 등 7가지로 세분하였다. 김성귀·홍장원(2002)은 어촌의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크게 구분한 뒤, 자연자원은 해수욕장, 철새도래지, 갯벌, 해양스포츠 장소,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기타로 세분하였으며, 인문자원은 사회문화자원과 산업자원으로 중분류한 뒤, 사회문화자원은 전시관, 지역축제, 바다음식, 어구어법, 어촌사적지, 어촌 등의 6개, 산업자원은 어항, 어장, 유어선 등의 3개로 세분하였다. 문화관광부(2001.7.)에서는 기존 개발된 자원의 실태를 중심으로 관광자원을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으로 분류한 후, 자연자원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온천 등으로 세분하였으며, 인문자원은 문화재, 전통민속마을, 농촌휴양자원, 어촌관광자원, 유원지,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세분하였다.

구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관광자원 분류체계를 비교해보면, 구미는 포괄적 측면

에서 관광자원을 분류하고, 일본은 이원적인 형태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는 대분류에서는 일본의 이원적 분류체계를 따르고, 세부분류에서는 구미의 분류체계를 따른다(김홍운, 1995). 이상에서 살펴본 몇몇 학자들의 관광자원 분류체계를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McIntosh & Goeldner(1991), 오익근(1997), 대구관광개발기획단(1996) 등은 구미의 관점, 강신겸·김현주(1999), 문화관광부(2001.7.)는 일본식 관점, 김성귀·홍장원(2002)은 한국식 관점을 가지고 분류한 전형적인 관광자원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어촌관광자원은 먼저 어촌관광에만 국한된 전용 어촌관광자원(specific blue tourism resources)과 일반 관광에도 활용 가능한 범용 어촌관광자원(general blue tourism resources)으로 대별될 수 있다. 21세기는 시스템적인 사고와 정보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 H/W와 S/W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휴먼웨어(humanware)가 필요하며, 21세기는 경쟁력의 기반이 전통적인 H/W나 S/W 중심에서 휴먼웨어가 중심이 되는 지식산업(knowledge industry)의 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전용 어촌관광자원은 크게 H/W적 측면, S/W적 측면, 휴먼웨어적 측면 등 3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그리고 H/W 기반의 어촌관광자원은 자연적 H/W 자원과 산업적 H/W 자원으로 세분될 수 있다. 자연적 H/W 자원에는 해수욕장, 갯벌, 수산동식물, 바다갈라짐,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등이 포함되며, 산업적 H/W 자원에는 관광어촌(어촌체험마을), 어항, 어장, 양식장, 유어선, 수산시장, 어촌민속관 등이 포함된다.

S/W 기반 어촌관광자원은 IT(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S/W 자원과 사회문화적 S/W 자원으로 세분될 수 있다. IT 관련 S/W 자원에는 어촌관광정보시스템, 어촌관광 DB 등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S/W 자원에는 바다관련 축제, 풍어제, 해양레포츠, 어구어법, 어촌관광 패키지, 어촌관광 촉진법(가칭), 어촌관광진흥기금(가칭) 등이 있다.

휴먼웨어 기반 어촌관광자원은 어촌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전업자와 부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전업 휴먼웨어 자원에는 어촌관광자원 운영요원, 어촌관광개발 전문가 등이 있으며, 부업 휴먼웨어 자원에는 어촌주민, 어촌관광안내원 등이 있다. 어촌관광안내원은 어촌을 잘 아는 사람이여야 하나 어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광안내원이 많지 않아 어촌주민이 이를 대신해야만 한다. 일반 관광분야에서는 관광안내원이 전업 종사자인 경우가 많으나 어촌관광은 그렇게 되기 어려운 현실적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촌관광자원의 개발, 관리 및 운영은 관광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중 세부분야별로 전업으로 종사해야 하는 분야이다.

범용 어촌관광자원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과 편의시설(facilities)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공공 시설 혹은 상업용 시설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들 범용 어촌관광자원은 어촌관광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관광에도 공용으로 필요한 관광자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중 공공 기반시설에는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이 있으며, 상업용 기반시설에는 유료 도로, 유료 교량, 유료 터널 등이 있다. 그리고 공공 편의시설에는 야영장, 공용 취사장, 공용 화장실 등이 있으며, 상업용 편의시설에는 호텔, 콘도미니엄, 식

당, 편의점, 쇼핑센터, 주차장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관광산업은 지식집약적(knowledge-intensive) 서비스 산업이며, 소프트 산업(soft industry)이기도 하다. 따라서 S/W가 관광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러나 아직 어촌관광과 관련해서 H/W와 S/W의 조화나 혹은 휴먼웨어의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는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관광의 여건변화를 보면, 관광패턴이 이동형, 단체중심에서 체재 및 체험형, 가족중심으로 변화하고, 환경에 대한 관점도 환경을 훼손하는 경성관광(hard tourism)보다는 환경을 보전하는 연성관광(soft tourism)으로 변화하였으며, 비즈니스 모델도 개별 사업, 단독 마케팅보다는 네트워크 구축, 공동 마케팅 쪽으로 이동중이며, 관광상품도 자연적 관광자원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H/W 중심에서 자연적 관광자원의 운영 및 활용에 관련된 S/W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강신겸·민승규, 2002). 그러나 농촌관광의 경우,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주말농원 등 H/W 중심의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관광농원의 경우, 1984년부터 2000년까지 400여개소에 대해 1,34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휴·폐업되었다. 이는 농촌관광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부족, 과도한 시설투자 등 경영의 부실화가 주요 원인이었다. 즉, 이는 그동안의 농촌관광사업이 H/W 중심의 시설확충에만 치우쳤고 체험프로그램, 마케팅 등 S/W 개발과 관련 인적자원의 개발은 등한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광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H/W뿐만 아니라 S/W 및 휴먼웨어에 대한 개발도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 5〉 관광을 둘러싼 여건 변화

변화 측면	현재	미래
관광패턴	이동형, 단체중심	체재형 및 체험형, 가족중심
환경관점	환경 훼손	환경 보전
사업모델	개별 사업, 단독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공동마케팅
관광상품	H/W 중심	S/W 중심

2) 어촌관광자원의 실태

현재 어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자료를 기준으로 위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에 따라 관련 자원을 표시하면 <표 6>과 같다. 먼저 H/W 기반의 어촌관광자원중 대표적인 자연적 H/W 자원인 해수욕장³⁾은 현재는 총 356개가 있으며, 해역별로는 동해 147개소, 서해 110개소, 남해 97개소 등으로 분포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 갯벌은 브라질의 아마존강 유역, 캐나다, 미국의 동부연안 등과 함께 세계 주요 갯벌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세계적 관광자원이다. 또한 서남해안 갯벌은 어류 200여종, 갑각류 250여종, 연체동물 200여종, 갯지렁이 100여종 이상이

3) 선교사 언드우드가 황해도 송천 해안에 정부의 허가를 얻어 1907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해수욕장을 개장

서식하고 있어 수산동식물 관광의 기반시설이 되기도 하다. 그리고 갯벌에서는 연간 조개류 50,000톤~90,000톤, 낙지 1,000톤 등이 생산되어 어업인들의 생활터전임과 동시에 오염물질 정화기능, 철새서식지 기능, 홍수시 물을 저장하거나 태풍·해일 발생시 에너지를 흡수하여 육지에 대한 피해를 저감시키는 재해방지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자연학습장소 또는 레크레이션 장소로 활용되어 국민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갯벌은 현재 남은 총면적이 2,393km²로서 지난 10여 년간(1987~1998) 서울 면적의 1.3배인 800여km²가 사라져 갯벌보존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진도, 여수 사도, 무창포 등으로 대표되는 다수의 바다 갈라짐 장소, 총 2,648.54km²의 해상 국립공원과 3,200여개의 도서를 비롯한 다수의 기암괴석이 산재해있는 해안 경관지, 바다 낚시터, 세계적인 주요 철새 3종 이상이 도래하는 연안 도래지가 약 20개소 등 자연적 어촌관광자원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하다고 할 수 있다.

〈표 6〉 어촌관광자원의 유형별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관련 관광자원 예
전용 어촌관광자원	H/W 기반 어촌관광자원	자연적 H/W 자원	해수욕장(356개), 갯벌(2,393km ²), 수산동식물, 바다갈라짐, 해안경관지, 바다낚시터, 철새도래지(20여개) 등
		산업적 H/W 자원	관광어촌(어촌체험마을 57개 등), 어항(2,400여개), 어장, 양식장, 유어선(4,200 여척), 수산시장, 어촌민속관 등
	S/W 기반 어촌관광자원	IT 관련 S/W 자원	어촌관광정보시스템, 어촌관광 DB 등
		사회문화적 S/W 자원	바다관련 축제(83개), 풍어제(40개), 해양레포츠, 어구어법, 어촌관광 패키지, 어촌관광축진법(가칭), 어촌관광진흥기금(가칭) 등
	휴먼웨어 기반 어촌관광자원	전업 휴먼웨어 자원	어촌관광자원 운영요원, 어촌관광개발 전문가 등
		부업 휴먼웨어 자원	어촌주민, 어촌관광안내원 등
범용 어촌관광자원	기반시설	공공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등
		상업용 기반시설	유료 도로, 유료 교량, 유료 터널 등
	편의시설	공공 편의시설	야영장, 공용 취사장, 공용 화장실 등
		상업용 편의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식당, 편의점, 쇼핑센터, 주차장 등

자료 : 해양수산부 내부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체험관광개발 활성화계획, 2002. 3.

산업적 H/W 자원에는 잠재적 관광어촌이라 할 수 있는 4,000여개의 어촌 자연부락이 있으며, 2002년에 시작된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 이후에는 어촌체험마을도 57개가 생길 것이다. 또한 어항은 지정어항 422개소와 소규모항 2,000여개소를 합해서 전국에 2,400여개소가 존재한다. 최근 기르는 어업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추진중인 바다목장화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통영 시범목장, 전남 다도해목장, 제주형 목장, 서해 갯벌형 목장, 동해형 목장 등 5가지 모형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들 바다목장 모형들은 기르는 어업의 목적 추구 외에도 어장체험관광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선박이 2001년말 기준으로 4,240척이 있으며, 3곳의 민속전시관 및 수족관, 수산과학관 2곳, 유물전시관 1곳 등이 있다.

S/W 기반 어촌관광자원에는 어촌관광정보시스템, 어촌관광 DB 등의 IT 관련 S/W 자원과 바다관련 축제, 풍어제, 해양레포츠, 어구어법, 어촌관광 패키지, 어촌관광축진법(가칭), 어촌관광진흥기금(가칭) 등의 사회문화적 S/W 자원이 있다. 현재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어촌관련 행사중 풍어제 성격의 것이 약 40개, 바다관련 축제가 80여개 있다. 해양레포츠 관련 자원에는 요트장 7개소를 비롯해서 많은 장소에서 스쿠버다이빙이나 각종 해양스포츠가 행해지고 있으며, 지인망 등을 통한 어구어법을 체험할 수 있는 곳도 다수 곳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외의 사회문화적 및 IT 관련 S/W 자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휴먼웨어 기반 어촌관광자원중 전업 휴먼웨어 자원에는 어촌관광자원 운영요원, 어촌관광개발 전문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정규 대학 및 고교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관광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전문인력들이다. 그리고 부업 휴먼웨어 자원에는 어촌주민, 어촌관광안내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관광 전문인력들이 아니라 주로 어민들이 그 역할을 달리 했을 뿐이다. 2001년부터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에서 매년 30명씩 부업 휴먼웨어 자원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관광가이드와 관광 리더를 구별한 체계적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며, 교육대상도 어촌계장, 마을이장, 어민후계자를 중심으로 어촌계당 3명씩만으로 한정되어 지역리더의 관광마인드 조성이 주 목적인 실정이다.

공공 및 상업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로 구성된 범용 어촌관광자원 역시 IT 관련 어촌관광자원처럼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중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공공시설은 국가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상업용 시설은 상업자본의 유치를 통해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관광 가치사슬 모형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1. 관광 가치사슬(tourism value chain)

관광객은 복합적 관광시스템(complex tourism systems)의 모든 요소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휴가경험에 대한 질과 만족도를 평가한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복합적 관광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복합적 관광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관광 경험의 생산 및 소비의 기초가 되는 관광 가치사슬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Bieger, 1997). 가치사슬이란 외부로부터 조달한 투입물을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적 투입물과 합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일련의 내부활동의 연결이라 볼 수 있다. 가치사슬의 분석시 경제학적 관점보다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이유는 가치변환과정에 영향을 주는 변형자(transformer)와 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미시경제학에서는 가치변환과정을 블랙박스로 취급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만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때문에 가치사슬상에 영향을 주는 변형자의 역할을 무시하기 때문이다(어윤대·방호열, 1995).

가치사슬 모형은 가치활동과 이윤으로 구성된 총가치로 표시되며, 가치활동은 일차적 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⁴⁾으로 세분된다. 어촌관광에서의 일차적 활동은 어촌관광 홍보, 어촌관광 예약, 어촌관광지 이동, 어촌관광 체험, 어촌관광 이탈, 어촌관광 사후관리로 구성된다.

지원 활동	하부구조(기반·편의시설)						이 윤
			인적자원관리	(휴먼웨어)			
			기술개발(IT관련)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구매(사회 문화적 자원)				
일차적 활동	어촌관광 홍보 (IT 관련 자원, 휴먼웨어)	어촌관광 예약 (IT 관련 자원, 휴먼웨어)	어촌관광지 이동 (IT 관련 자원, 기반시설)	어촌관광 체험 (자연자원, 산업자원, IT 관련 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휴먼웨어, 편의시설)	어촌관광지 이탈 (IT 관련 자원, 기반시설)	어촌관광 사후관리 (IT 관련 자원, 휴먼웨어)	

* 괄호안은 가치활동별로 필요한 어촌관광자원

〈그림 1〉 어촌관광 가치사슬 모형

어촌관광 홍보 가치활동에는 먼저 어촌관광에 필요한 정보를 저장·활용하는 어촌관광 DB 및 어촌관광 IS(information systems) 등 IT 관련 S/W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관광마케팅은 소비자의 동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Fodness, 1994). 따라서 어촌관광객에 대한 동기조사를 통한 어촌관광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이를 분석해줄 어촌관광 분석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어촌관광 홍보용 시스템의 운영이나 자료제공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운영 담당자와 어촌주민이 직접 관여해야만 정확한 자

4) 지원활동중 하부구조는 특정 일차적 활동만을 지원하기 않고 전체 가치활동을 지원하기 때문에 가치활동별 구분선이 없음.

료의 제공과 갱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촌관광 홍보 가치활동에는 전업 및 부업 휴먼웨어 자원이 모두 필요할 것이다.

어촌관광 예약 가치활동에는 관광목적지까지의 이동수단에 관한 교통예약 IS, 어촌에서 체류장소를 연결해주는 숙박예약 IS, 어촌의 특색있는 먹거리에 관한 식음예약 IS, 그리고 실제 어촌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 패키지예약 IS 등 IT 관련 S/W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어촌에서의 체험 및 어가에서의 민박을 원할 경우, 어촌주민이 관련되므로 부업 휴먼웨어 자원이 추가적으로 어촌관광 예약 가치활동에 필요할 것이다.

어촌관광지 이동 가치활동에는 이동수단의 이용가능 장소, 운행시간, 소요시간 등에 관한 교통안내 관련 IS와 어촌관광지로의 접근편의성을 위한 지리 IS 등의 IT 관련 S/W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의 관광지 이동수단을 보면, 자가용의 이용비율이 60.7%, “기차 및 버스”의 이용비율이 33.6%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귀·홍장원, 2002). 따라서 대중교통보다는 개인적인 교통수단 의존도가 높음에 따라 일반인들을 위한 그래픽 형식의 지리 IS 제공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지의 접근에 필요한 도로, 교량, 터널 등의 기반시설도 어촌관광지 이동 가치활동에 필요할 것이다.

어촌관광 경험 가치활동에는 숙식을 위한 호텔 IS 및 레스토랑 IS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관광자원에 대한 사용 및 역사적 의미 등을 관광객에게 설명해주는 어촌관광 해설 IS와 어촌관광에 사용된 제경비의 정산을 위한 결제 IS 등의 IT 관련 S/W 자원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어촌관광의 체험은 실제 자연자원과 사회문화적 자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H/W 기반 및 비 IT 관련 S/W 자원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관광자원의 경우에는 알지 못하면 감동도 없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은 “아는 만큼 느낀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어촌관광이 도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관광해설을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양질의 어촌관광 체험을 위해서는 어촌관광 해설 IS 이외에도 어촌관광개발 전문가나 어촌관광 안내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휴먼웨어 기반 어촌관광자원이 어촌관광 체험활동에 필요하며, 또한 숙식 및 여행기념품 구입 등과 관련해서 편의시설도 필요할 것이다.

어촌관광 이탈 가치활동에는 어촌관광후 출발지로의 복귀나 추가적인 관광을 위해 이동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어촌관광지 이동 가치활동에서처럼 교통관련 IS와 지리 IS 등의 IT관련 S/W 자원 및 기반시설을 필요로 할 것이다.

어촌관광 사후관리 가치활동에는 어촌관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활동이다. 관광 마케팅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 management : CRM)에 관련된 가치활동들이 주로 어촌관광 사후관리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재방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CRM IS, 고충처리 IS 등을 중심으로 한 IT 관련 S/W 자원과 이들 IS를 관리할 전업 휴먼웨어 자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지원활동은 도로, 주차장, 숙박시설 등의 기반·편의시설 자원에 관련된 하부구조(infrastructure)와 어민들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휴먼웨어에 관한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 관광 패키지 및 IS 구축 기술개발 등의 S/W기반 자원에 관한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해양레포츠 장비 구매, 식음 원재료 구매, 관광 안내 표지판 구매, 기타 소모품 구매 등의 사회문화적 자원의 운영을 위한 구매(procurement) 활동으로 구성된다.

2. 어촌관광 가치사슬 모형을 통한 어촌관광의 제문제

어촌의 생활여건 악화는 청장년층의 어촌 이탈을 유발하여 어촌의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곧 어촌의 고령화 현상을 유발하며, 어촌인구의 고령화는 소득수준을 하락시켜서 어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심화시킴으로써 어촌의 생활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현재 어촌에 행해지고 있는 어선세력의 구조조정, 어가부채경감, 수산보조금 지급 등의 부담 경감용의 수동적 지원책(passive supports) 보다는 어항시설확충, 어촌종합개발, 어촌관광 활성화 대책 등과 같은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동적 지원책(positive supports)의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의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의 자료(2002)에 의하면 1996년의 6,600만명의 어촌관광객 수요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시 2001년에는 8,600만명, 2011년에는 10,300만명으로 급성장할 것이며, 국민 1인당 어촌관광회수가 2.06회로 증가하는 2011년의 어촌관광에 대한 국민총지출액은 3조원에서 4조 5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총지출액중 공산품 구입비 40%, 서비스비 30%를 제외하면 어가소득에 약 1조원에서 1조 4천억원의 어업외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표 7〉 어촌관광에 대한 전망

연 도		'96	'01	'11
관 광 객 수 (만명)		6,600	8,600	10,300
국민1인당회수/년간		1.49	1.83	2.06
당일관광	1인당비용(천원)	26	28	30
	국민총지출(억원)	17,000	24,000	31,000
하계휴가 (2박3일)	1인당비용(천원)	77	83	90
	국민총지출(억원)	35,000	39,000	45,00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그러나 이러한 어촌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예측일뿐 그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촌관광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어촌관광 가치사슬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앞의 어촌관광 가치사슬에서 표시된 가치활동별로 필요한 어촌관광자원과 주요 어촌관광자원의 실태를 비교해보면 어촌관광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일차적 가치활동에 필요한 어촌관광자원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어촌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어촌관광지 이동 및 이탈을 제외한 모든 일차적 어촌관광 가치활동에는 IT 및 휴먼웨어 기반 어촌관광자원이 필요하며, 어촌관광 체험 가치활동에서는 추가적으로 자연자원, 산업자원, 사회문화적 자원 및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IT 관련 S/W 자원의 경우, 현재 몇몇 시스템이 운영중에 있으나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협중앙회의 민박안내 웹사이트(<http://www.suhyup.co.kr/gongsa/gongsa-1.html>)는 일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민박 전화번호만을 게시하는 수준이며, 한국해운협회의 섬여행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http://island.haewoon.co.kr/>) 역시 정보량이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어촌관광용 IT관련 관광자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휴먼웨어 자원중 어촌관광자원의 운영요원과 어촌관광개발 전문가 등의 전업 종사자들은 정규 관광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주축이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심도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어촌민속유물의 보존이나 해양레포츠 시설물을 운영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어민들이 단기 교육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관광관련 학과가 실업계 고교 및 대학에서 많이 개설되고 있어 전업 휴먼웨어 자원의 부족문제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부업 휴먼웨어 자원의 부족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어촌을 체험하기 위해 방문한 도시민들이 어촌주민들과 다양한 어촌생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청장년층의 어촌주민들이 많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촌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30~40대의 구성비가 약 30%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어촌인구의 절대수 부족을 감안한다면, 향후 어촌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인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1년부터 국립수산물과학원의 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을 통해 어촌관광안내원이 매년 30명씩을 배출되고 있으나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어촌관광 체험 가치활동에만 관련되는 H/W 기반의 자연자원 및 대부분의 산업자원은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적 H/W 자원중 해양수족관, 수산물과학관, 어촌민속관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S/W 기반의 사회문화적 자원 중 바다관련 축제, 풍어제, 해양레포츠, 어구어법 등은 다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풍부하다. 그러나 아직 어촌관광 예약, 대금정산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IT 관련 S/W 자원과 어촌관광 촉진법(가칭), 어촌관광진흥기금(가칭) 등 사회문화적 S/W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준비 및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활동중 어촌관광자원들중 특정 일차적 가치활동과 관계가 없는 하부구조 이외의 지원활동들은 모두 전용 어촌관광자원과 관련이 있다. 이중 휴먼웨어의 개발에 관한 인적자원관리와 S/W 자원의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의 문제는 일차적 가치활동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활동이 미진한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S/W 자원이 구매 지원활동과 관련된 이유는 어촌 이벤트, 해양레포츠 장비, 어구어법 등에 관련된 구매활동이 많기 때문이며, 이들의 구매 계획 및 과정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3. 자원별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어촌의 생활환경은 도시에 비해 낙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어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망 개설 및 포장, 상하수도 및 화장실 등 공중위생시설의 수리 및 설치, 통신시설 및 전기시설의 확충, 주차장 및 도로표지판 설치 등과 같은 범용 어촌관광자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어촌관광에만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용 어촌관광자원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촌관광 가치사슬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들에 대해 전용 어촌관광자원인 H/W, S/W 및 휴먼웨어를 중심으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W 측면에서의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 체계적 어촌관광 홍보전략수립

효과적인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홍보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관광 마케팅을 위한 시장세분화(segmentation), 표적화(targeting), 정위화(positioning)라는 전략과정이 필요하다(김종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2000). 어촌관광의 시장세분화는 관광수요나 시장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시장세분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준에는 성, 연령, 소득수준, 지역, 취미 등의 기준이 있다. 시장세분화 후에는 해당 어촌관광자원을 주로 이용하게 될 표적시장의 선정이 필요하며, 이를 표적화라고 한다. 표적화가 끝나면 마지막 전략수립단계로 정위화가 있으며, 이는 상품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속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Kotler, 1992). 따라서 어촌관광지별로 자신의 강점을 살려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를 심는 과정이 실제 관광서비스 제공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웹기반 관광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가치활동의 지원

관광행동과정에 따라 관광정보의 유형을 분류하면 관광에 대한 욕구를 유발하는 유발정보, 관광 장소, 시간, 목적의 결정을 돕는 선택정보, 관광 루트, 예산, 소요시간, 숙박, 교통 등의 선택을 돕는 계획정보, 현지도착 후 필요한 음식점, 토산품점, 산책코스 등의 결정을 돕는 현지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매체로는 안내소(원), 인쇄물, 전화(ARS), PC 통신, Fax, 인터넷 등이 있다. 이들 정보 전달매체별 정보전달효과를 관광후의 정보교환단계를 포함한 관광행동과정별로 비교해보면, <표 8>과 같다(김향자·손정환, 1999).

모든 관광행동단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전달매체로 나타남에 따라 웹을 기반으로 한 어촌관광정보시스템 혹은 DB의 개발이 다른 어떤 관광정보 제공수단의 개발보다도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웹을 기반으로 어촌관광 정보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여행전 사전계획수립시 웹용 관광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여행자의 수가 1996년 3.1백만에서 1998년 33.8백만으로 10배나 증가하였으며(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1999), 전자상거래 상품중 관광상품의 웹상 매출액 순위가 3위

가 될 정도로 웹상에서의 관광상품 매출액이 크기 때문이다(Heichler, 1997; Tweney, 1997; Yoffie, 1997). 따라서 어촌관광 가치활동이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는 웹기반 어촌 관광 정보시스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촌관광정보시스템 혹은 DB의 개발로 어촌관광 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가 완전하게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이용매체의 활용율은 연령, 성, 지역 등에 따라 다변함으로 동일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웹이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타 정보전달매체보다 이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 8〉 관광행동과정별 정보매체의 정보전달 효과

행동과정 정보매체	유발정보	선택정보	계획정보	현지정보	정보교환
안내소(원)	-	○	○	○	◎
인쇄물	◎	○	△	×	×
전화(ARS)	×	×	△	○	×
PC 통신	○	○	◎	○	◎
Fax	△	△	○	○	×
인터넷	◎	◎	◎	◎	◎

범례) ◎ - 매우 우수, ○ - 우수, △ - 보통, × - 불량

○ 어촌 문화관광의 활성화

과거에는 구경위주의 정적 관광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참여위주의 동적 관광이 중심이 되고 있다. 향후에는 심미적인 것을 중요시 하는 문화관광으로 관광패턴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방의 어촌문화행사 및 풍물의 개발을 통한 어촌 문화관광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현재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바다관련 축제는 풍어제를 포함해서 120여개가 있다. 그러나 이들 축제중 일부만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행사횟수 제한, 지역성과 역사성 부각, 규모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의식고양, 실제 장소의 활용 등과 같은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김홍운, 1993).

○ 어촌 상업관광의 활성화

농업, 목축업, 어업, 상업 등에 관한 관광을 통틀어 산업관광이라고 한다. 이들 산업관광중 상업 관광을 관광화한 것이 상업관광이다(김홍운, 1993). 상업관광은 관광의 부수적 행위로서 토산물 및 민속품의 구입이나 시장풍물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 상업관광은 수산업의 상업부문을 관광화한 것으로 대표적인 대상이 수산물시장이다. 현재 어촌 상업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수산물시장에는 부산의 자갈치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서울의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흑산도·추자도·연평도 등에서 조기철에 열리는 파시(波市) 등이 있으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장이 많이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안들이 필요하다.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의 경우에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매년 자갈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그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관광객이 몰려와 관광특수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에게 자갈치시장이 수산물 판매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먹거리와 볼거리도 풍부한 관광명소라는 인식을 심어가고 있어 어촌 상업관광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 우수사례 발굴 및 모델화

어촌마다 환경이 달라 동일한 모델로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다수의 우수 어촌관광 사례를 발굴하여, 주요 성공요인(critical success factor)을 분석함으로써 어촌 특성별 어촌관광개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촌관광의 경우, 이러한 표본 모델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15년간 400개소 이상의 관광농원이 개발되었으나 반 이상이 휴·폐업을 한 상태이다(강신겸·민승규, 2002). 따라서 어촌관광도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공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벤치마킹을 해야만 성공가능한 어촌관광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 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재 어촌관광의 실태를 살펴보면 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또한 관광하는 계절 역시 여름철 한때, 특히 7~8월의 휴가철에 집중되어 있다(황기형, 2001). 따라서 어촌관광에 대한 수요의 집중현상으로 인해 관광으로 인한 어민 소득증대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촌관광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어촌은 자연적 H/W 자원이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다수 권역을 대상으로 한 어촌관광코스의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단기 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을 위한 피스톤형 관광코스, 장기간의 체류를 원하는 관광객을 위한 텀블린형 관광코스, 중간단계인 키이형이나 안전핀형 등의 관광코스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김종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2000). 또한 동일한 관광코스도 관광루트를 다양화함으로써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가능하므로 위의 4가지 관광코스 유형에 대한 고려와 함께 내륙관광루트, 내륙·해안관광루트, 해안관광루트, 해상관광루트, 항공관광루트 등과 같은 관광루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모듈화된 관광 패키지의 문제도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시 고려되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이다. 실제 관광객들은 다양한 체험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나 관광 패키지의 모든 구성요소(components)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시 관광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화 패키지(individualized packages)를 위한 대량맞춤식(mass customization) 전략이 필요하다(Pine II, 1993). 이는 고객이 단순히 다양한 관광 패키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만 원하기 때문이다(Faché, 2000). 따라서 관광상품의 모듈화를 통해 개인의 기호를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 패키지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어촌의 관광실태를 고려한 단계별 지원정책 수립

어촌은 관광의 발전정도에 따라 순수 어촌, 관광 어촌, 순수 관광지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지리상으로 보면 도시근교형, 연안어촌형, 도서형 등으로 분류된다(김성귀·홍장원, 2002). 순수 어촌은 어업이 주가 되는 마을로서 어촌의 각종 생산기반시설 및 환경정비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 된다. 관광 어촌은 점차 관광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순수 관광지는 관광산업이 주가 된 마을로서 어업보다는 순수 관광목적의 어촌지원 정책이 중요시 될 것이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도시근교형은 도시민들의 당일 관광 수요가 많을 것이므로 숙박시설보다는 경관구경, 먹거리, 해수욕 등을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어촌형중 도시와 거리가 먼 곳은 접속도로, 해양레포츠 시설 및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도서형은 휴양시설과 민박시설, 선박접안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해관계자간의 네트워크 구축

최근 관광개발과 관련되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란 다양성(diversification), 권한부여(empowerment), 연계성(connectivity)에 의해 결정된다(Castri & Balaji, 2002). 다양성이란 관광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권한부여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관광개발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계성이란 관광 이해관계자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전자 의사소통도구를 통해 매우 활성화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어촌관광도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어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어촌관광 이해관계자들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다양한 내외부 네트워크 구축은 해당 어촌의 부족한 핵심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연계단체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주민들에게 부족한 지역문화, 마케팅, 고객접대, 회계, 시설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타 어촌 및 행정기관들과 연계하여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시 행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민 및 각종 단체와 자매결연, 회원제,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교류 네트워크를 결성한다면 고정적인 관광객 및 수산물 판매시장의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최근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이버 커뮤니티가 활성화됨에 따라 저비용으로 사이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 타 부서와의 정책협의 제도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

어촌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들 모두가 어촌관광과 연관성이 있다. 이들 정책들은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간의 상호 정책적 조율제도가 없어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관광개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의 입안시 관련 부처의 사업과 중복성 검토, 명확한 지원규정, 그리고 나눠주기식이 아닌 실질적 개발자금의 지원 및 이자율 인하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윤상호, 2000).

○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법 마련

어촌관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근거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어항법의 일부로 되어 있는 어촌관광 부분을 분리시켜 독자적인 어촌관광촉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어촌관광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어촌관광진흥기금법(가칭)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다른 산업에서와 같이 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관광상품을 등급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광에 관한 자발적인 품질관리 측정 및 자격증 제도가 관광개발시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Castri & Balaji, 2002). 일반적으로 관광상품은 서비스 상품이기에 때문에 체험 전까지는 상품의 품질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사전 정보가 없이 저급의 관광상품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고객의 불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미리 상품의 수준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의 등급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2) H/W 측면에서의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 권역별 어촌관광개발

관광권이란 일정한 지표공간에 있는 관광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해서 관광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일정한 지표공간을 개발·관리·보전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지역이다. 관광권 설정기준에는 거점개발방식, 자연지형, 행정구역범위, 관광자원분포평가 등이 있다(김중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2000). 거점개발방식 설정기준은 관광산업이 낙후된 지역에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개발을 할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연지형 설정기준은 자연지형을 기준으로 관광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나 최근에는 교통망의 발달 및 댐의 건설 등으로 인해 부적합한 방식이 되었다. 행정구역범위 설정기준은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을 핵으로 해서 관광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며, 관광자원분포평가 설정기준은 관광자원의 분포에 따라 핵심지역을 보완하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관광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어촌관광의 경우에는 모든 관광자원이 특정 어촌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거점 개발방식과 관광자원분포평가에 의한 권역별 개발이 적합한 정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관광 개발사업시 권역별로 특화된 어촌관광권이 될 수 있도록 각 어촌별 관광자원에 대한 실사를 통해 관광권의 설정 및 개발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어촌에 대한 공간별·용도별 이해를 통한 개발

어촌관광개발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무분별한 지역개발 및 해안 매립사업으로 많은 자연자원의 파괴와 환경오염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H/W 측면에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의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

연자원의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촌관광의 주무대가 되는 어촌사회에 대한 공간별·용도별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촌사회는 공간적 측면에서 전면에 있는 바다, 바다와 어촌을 연계시켜주는 중간위치의 어항, 그리고 배후에 있는 어촌공간으로 구성된다(김성귀, 2001). 또한 바다의 이용공간은 해변, 해상, 해중, 해저 등으로 세분화된다(이종훈, 2000). 바다 공간중 해변은 해수욕, 해양과학관, 친수공간, 갯벌체험 등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해상은 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의 수상스포츠를 위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해중은 잠수정, 유리바닥을 가진 해저 관람용 선박 등에 의한 해중관람을 위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해저는 폐선박이나 인공어초를 이용한 해저공원의 조성을 통해 스쿠버 다이빙을 위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어항은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낚시, 산책, 레저선박용 접안시설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어항은 수산물에 대한 유통장소로의 활용도 가능하므로 수산물 판매를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라 레저용 선박과 어선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기존 어항구역과 관광용 어항구역의 구분을 통한 어항개발이 필요하다. 끝으로 어촌은 관광을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어촌주민들의 주거공간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어촌의 개발은 어촌 고유의 미풍양속과 경관의 파괴를 가져옴으로서 어촌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손상시키거나 어촌관광개발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어촌마을의 개발시에도 바다나 어항의 용도구분과 같이 주거용 지역과 위락시설용 지역 등으로 구체화해서 개발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 장소마케팅을 고려한 어촌관광지 개발

장소마케팅이란 장소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역사적 현상과 지리적 특성들을 관광객에게 마케팅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미지가 남게 하여 추후 관광상품이나 지역을 선택할 때 선호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마케팅 활동이다. 장소마케팅을 위해 이용가능한 모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모델(cultural industries model),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모델(integration model),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촉진 또는 소비자 중심주의 모델(promotion or consumer model) 등 3가지가 있다(김종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2000). 이들 모형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혼합모형의 추구도 가능하다. 따라서 관광자원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이들 모형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어촌관광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테마파크의 조성

어촌관광이라고 해서 해수욕장, 낚시터, 횃집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4,000여개의 어촌이 모두 동일한 어촌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역별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각기 독특한 테마를 설정하면 차별화를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다. 만약 차별화된 어촌관광 테마파크가 조성

되지 않으면 관광객은 방문하는 어촌마다 동일한 체험한다고 느껴 관광을 위해 어촌을 재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다.

○ 어촌구조를 고려한 어촌관광의 특성화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어촌은 크게 간선도로형, 진입도로형, 해안도로형, 통과도로형 등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이재천, 1994). 먼저 간선도로형 어촌은 간선도로가 진입로로서 직접 어촌을 관통하여 선착장에 이르는 형태로서 관광관련 시설들이 도로를 따라서 列狀의 가촌형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평지가 적은 암석해안에 주로 형성되며, 해수욕장이 없거나 미약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간선도로형 어촌은 유어선 어업과 활선어 요식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경쟁력 있을 것이다. 간선도로형 구조를 가진 어촌은 경기도 평택군의 연암, 강원도 양양군의 수산, 안릉, 전남 고흥군의 내본 등이 있다. 진입도로형 어촌은 간선도로에서 연결된 지선이 진입도로로서 어촌을 관통해서 해안의 선착장에 이르는 경우로서 주로 사빈해안에 발달된 어촌구조이다. 따라서 해수욕장을 갖춘 어촌이 많아 해수욕객을 위한 민박시설이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 거제군의 학동, 경북 영덕군의 부흥, 경남 남해군의 송남 등이 진입도로형 어촌에 속하며, 이러한 어촌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해안도로형 어촌은 간선도로와 해안도로가 근접해 있고 두 도로 사이에 진입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다. 촌락이 해안도로를 따라서 列狀으로 형성되며, 정면이나 측면에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는 사빈해안 어촌이 이러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안도로형 어촌은 민박, 활선어 음식점, 잡화점 등의 시설이 많아 관광서비스 기능률이 비교적 높다. 강원도 양양군의 남애, 전북 부안군의 송포, 강원도 삼척군의 갈남, 전남 영광군의 계마, 전남 진도군의 가계, 전남 완도군의 정도, 경남 울산군의 진하 등이 해안도로형 어촌에 속하며, 이들은 해수욕장과 관광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통과도로형 어촌은 간선도로가 진입로와 해안도로의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 간선도로가 어촌을 관통하고 있어 관광객이 집중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촌이다. 경남 통영군의 달아 어촌이 이러한 유형에 속하며, 접근 및 인지의 편리성으로 인해 당일 관광객의 집중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해양수족관, 수산과학관, 어촌민속관 등의 산업관광자원과 관광서비스 기능을 특성화시키는 것이 유리 할 것이다.

○ 어항의 관광자원화

부산의 대변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이 아름답고 상시 수산물 난전이 열리며, 많은 횃집이 밀집하여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또한 봄철에 멸치잡이가 시작되면 타지역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대표적인 관광어항이다. 이러한 관광어항은 전국에 다수개가 존재하며, 많은 투자가 없이도 즉각적으로 관광자원화가 가능한 곳이다. 따라서 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러한 관광어항의 적극적 개발 및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 해양수족관, 수산과학관, 어촌민속관 등 산업관광자원의 추가적 개발

현재 대형 수족관은 63빌딩의 대형수족관과 부산 해운대의 부산아쿠아리움 등이 있으며, 수산과학관은 부산시 기장군의 국립수산과학원 등 몇몇 곳에만 존재한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바다와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적어 성장 후 어촌을 방문할 가능성이 낮아 어촌관광의 성장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족관, 수산과학관, 어촌민속관 등과 같은 산업관광자원을 거점지역별로 추가 설립함으로써 현재의 어촌관광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추후 지속적인 어촌관광의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숙박시설의 확보

어촌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4,000여개의 어촌에 모두 설립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관광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숙박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촌의 가옥은 어촌이 입지하는 장소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가옥이 밀집되고 부속건물이 농촌에 보다 적어 가옥의 규모가 작고 방수도 적다(홍경희, 1985). 따라서 기존 어가가 어촌관광객을 위한 민박시설로 활용되려면 주택개량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세한 어민들의 자체 재원으로는 주택개량이 어려우므로 주택개량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출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휴먼웨어 측면에서의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

○ 수산계 고등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현재 전국에 수산계 대학은 6개가 있으며, 수산계 고등학교는 13개교가 있다(정명채, 2002). 이들 고등교육기관에 어촌관광 관련학과를 신설한다면 다른 교육기관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용효과적으로 고급 어촌관광 전문인력의 배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들 고등교육기관들은 수산관련 학과들이 많아 작은 투자금액으로 어촌관광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며, 특히 수산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들이 어촌을 배경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학습한다면 가장 우수한 어촌관광 전문인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일반 관광전문인력을 위한 단기 어촌관광교육기관의 신설

현재 많은 대학 및 실업계 고교에서 관광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실업계 고교에 설치된 관광관련 학과는 19개에 달하며, 설치 학교수는 74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19개 학과중 어촌관광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과는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에 있는 관광해양레포츠과 하나뿐이다. 그러나 이들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인력은 일반 관광에 대한 전문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촌관광에 대한 전문지식만을 교육한다면 우수한 어촌관광 전문인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중 일부를 어촌관광 전문인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현재 부족한 전업 휴먼웨어 자원에 대한 탄력적 해결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어촌관광 전문가로 육성

하기 위한 단기 어촌관광교육기관의 신설이 필요할 것이다.

〈표 9〉 전국 실업계고교의 관광관련 학과 현황

학교 및 학과 수	74개 학교, 19개 학과명
학 과 명	관광경영과, 관광골프관리과, 관광공예과, 관광과, 관광레저과, 관광영어과, 관광영어통역과, 관광외국어과, 관광원예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일본어통역과, 관광정보과, 관광정보통신과, 관광조리, 관광중국어과, 관광중국어통역과, <u>관광해양레포츠과</u> , 관광호텔과, 문화관광과정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부업 휴먼웨어 자원의 양성

전업 휴먼웨어 자원은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나 부업 휴먼웨어 자원은 단기간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부업 휴먼웨어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¹⁾이 있으나 연간 30명의 인원만을 배출하고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너무 많아 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만을 대폭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어촌관광리더가이드과정만으로는 늘어나는 부업 휴먼웨어 자원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의 정규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인력배출을 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아직 필요한 어촌관광 전문인력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 다소 시기상조적인 문제는 있으나 기존 어촌관광 전문인력들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신설도 필요하다. 현대는 불연속의 시대로서 신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교육이 없으면 비전문가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어촌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기존의 어촌관광 전문가들을 위한 신기술 및 사회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어촌관광 마인드 조성을 위한 어민 교육

어촌관광지는 어촌주민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광객과 어민들이 상호 공존을 위한 방향으로 교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민들이 어촌관광의 필요성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폐쇄적 사고에서 개방적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어민교육도 어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IV. 결 론

최근 보는 관광에서 행동하는 관광으로 관광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해안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이다. 이는 산악지형보다 어촌의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이재천, 1994). 어촌관광은 자원의 다양성,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 다양한 수산활동과의 연계 가능성 등의 강점과 주 5일 근무제 채택, 연안교통망 발달, 대체 소득원개발 장려 및 지원 정책 등의 기회로 인해 매우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또한 관광은 국제수지개선, 국민소득 및 고용증대 등과 같은 경제적 효과와 교육, 레크레이션, 문화, 국제친선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다(김종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2000). 특히 관광산업의 고용승수는 사회 및 기타서비스업 다음으로 높아 고용유발효과가 다른 산업보다 매우 크다(이강욱·류광훈, 1994). 따라서 어촌관광은 어촌뿐만 아니라 국가 및 국민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관광은 어촌의 자연환경 및 미풍양속을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어촌개발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역효과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관광 가치사슬을 통해 어촌관광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서 어촌사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어촌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을 파악하기 위해 어촌관광자원의 분류체계를 수립한 뒤, 어촌관광 가치사슬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어촌관광자원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관광 가치평가지 중요시 해야 할 사항은 관광객들이 다수의 개별 서비스를 경험하고, 이들의 내재적 특성을 평가하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광경험을 판단한다는 것이다(Weiermair & Fuchs, 1998). 따라서 어촌관광의 활성화는 특정 측면만을 중요시 해서는 안되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관광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통해 파악된 어촌관광자원을 어촌관광 가치활동의 전단계에 걸쳐 부족한 자원을 식별함으로써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들은 기존의 문헌적 자료를 기반으로 수립된 것이다. 따라서 일부는 현실적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에 대한 관심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Fram & Grady, 1997). 그러나 Chen(2003)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여행방문지를 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사람은 여성이 더 많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방문객의 약 5% 미만인 인터넷상의 여행상품 매출수준(Machlis, 1997)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웹디자인을 해서 여행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여행상품의 판매율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헌적 연구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이들 방안들을 정책입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었다. 그리고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전략을 수립하려면 어촌관광객들에 대한 동기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관광에 대

한 욕구와 목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Goossens, 2000)이라 이에 대한 고려가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부분도 향후 연구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신겸·민승규, “농촌관광의 가능성과 발전방향”, *CEO Information*, 제333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1.30.
- 강신겸·김현주, 관광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경쟁력 강화방안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1999.9.
- 건설교통부, 도로현황조사, 2002.
- 김성귀,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해양수산*, 제 188호, 2001.4., pp.30-43.
- 김성귀·홍장원, “어촌 관광 발전방안 연구”, 2002년 한국수산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2.6.14., pp.71-95.
- 김성귀·홍장원·박상우,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12.
- 김영문·채수원·정익재,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관광정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연구”, 대한관광경영학회, 제 14집, pp.165-183.
- 김종은, 이혁진, 김영규, 윤병국, 현대관광현상의 이해, 삼광출판사, 2000.
- 김향자·손정환, 관광안내정보 시스템 구축방안, 한국관광연구원, 기본연구 99-02, 1999. 8.
- 김홍운, 관광자원론, 일신사, 1995.
- 대구관광개발기획단, 1997-2001 대구관광개발계획, 1996.
- 문화관광부,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2001. 7.
- 송미령, “농촌마을 관광모델과 주민참여 방안”, 여가와 농촌활성화, 삼성경제연구소.
- 어윤대·방호열, 전략경영, 학현사, 1995.
- 오익근, “한일을 포함한 주요국의 관광정보 분석”, 계명대학교-모모야마가쿠인대학 국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계명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7, pp. 1-11.
- 윤상호, “어촌휴양관광사업단지사업의 제도적 제고”, *해양수산동향*, 제 993호, 2000.12. 4.
- 이강욱·류광훈,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한국관광연구원, 정책연구 99-08, 1999.
- 이재천, 관광어촌, 자유출판사, 1994.
- 이종훈, “해양관광의 효율적인 특화 추진방안”, *해양수산동향*, 969호, 2000. 4. 23.
- 조진훈, “농어촌 종합개발현황과 개선방향”, *어촌·어항 정비법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 2002.12.5., pp. 41-78.
- 정명채, “농어업·농어촌 교육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7.24.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어촌체험관광개발 활성화계획, 2002.3.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국내정보화격차(digital divide) 현황, 2001. 2.20.

- 홍경희, *촌락지리학*, 법문사, 1985.
- 황기형, "국내 어촌관광 실태분석", *해양수산*, 제 205호, 2001.10., pp. 75-90.
- Bieger, T., *Management von Destinationen und Tourismusorganisationen*, Oldenbourg, München Wien, 1997.
- Buckley, R., "Sustainable Tourism : Technical Issues and Information Need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3, No.4, 1996, pp.925-928.
- Castri, F. d., & V. Balaji, "Tourism, Biodiversity and Inform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9, No.1, 2002, pp.269-270.
- Chen, J. S., "Market Segmentation by Tourists' Sentimen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30, No.1, 2003, pp.178-193.
- Crompton, J. L.,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6, 1979, pp.408-424.
- Dann, G. M. S., "Tourist Motivation : an Appraisal,"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8, pp.187-219.
- Faché, W., "Methodologies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Services in Tourism," *Managing Service Quality*, Vol.10. No.6, 2000, pp.356-366.
- Fodness, D., "Measuring Tourist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1, 1994, pp.555-581.
- Fram, E. H., & D. B. Grady, "Internet Shoppers : Is There a Surfer Gender Gap?," *Direct Marketing*, Vol.59, No.9, 1997, pp.46-50.
- Goossens, C., "Tourism Information and Pleasure Motiv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7, No.2, 2000, pp.301-321.
- Heichler, E., "Internet Lacks Content for Women," *Computerworld*, Vol.31, No.19, 1997, p.64.
-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7판, 윤중현 역, 범한서적주식회사, 1992,
- Machlis, S., "Profit Elude Travel Sites," *Computerworld*, Vol.32, No.1, 1997, pp.53-54.
- McIntosh, R. W., & C. R. Goeldner,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John Wiley & Sons Inc., 1990.
- Mountinho, L., "Consumer Behavior in Tourism," *European Journal of Marketing*, Vol.21, 1987, pp.5-44.
- Pine II, B. J., *Mass Customiza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Boston, MA., 1993
- Travel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 "New Travel and Technology Report : 6.7 Million Adults Use the Internet for Travel Reservations," <http://www.tia.org/press/010899tech.htm>, 1999.

- Tweney, D., "Making Money on the Web : What Is Really Working?," *Infoworld*, Vol.19, No.36, 1997, pp.63-64.
- Weiermair, K., & M. Fuchs, "Quality Dimensions in Alpine Tourism and Their Assessment by Tourists and Tourism Entrepreneurs," *Conference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Research Seminar on Service Management*, La Londe les Maures, Frankreich, 1998, pp.840-859.
- Yoffie, A. J., "The e-Shopper," *Brandweek*, Vol.38, No.19, 1997, pp.30-32.

A Study on Activating Blue Tourism by Value Chain Model

Kim, Jin - Baek*

Abstract

Korean fisheries societies have had many difficulties for economic, social, and living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has tried many projects to improve these circumstances. But the results of the projects did not come up to his expectation.

Recently, blue tourism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for improving these circumstances. So we applied a tourism value chain model for identifying what value activities and resources needed. According to the tourism value chain model,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six different value activities, i. e. advertising, reserving, moving, experiencing, returning, and after services of blue tourism.

To identify which of the resources are sufficient or not in Korean blue tourism, we compared the required resources with actual ones. It was identified that Korean fisheries societies have so sufficient H/W related resources, but not IT related S/W resources, humanware-based resources, some industrial H/W resources and sociocultural resources. Therefore, Korean blue tourism will be activated, we have to concentrate our efforts on supplementing some scant blue tourism resources, i.e. S/W and humanware related resources and developing a variety of tourism programs to H/W resources.

Generally, sustainable tourism needs all of S/W, H/W, and humanware resources. So we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the aspects of S/W, H/W, and humanware resources to activate blue tourism. But before carrying these policies out, they should be tested by field studies. And tourism motivations will be also studied because effective tourism marketing is impossible without an understanding of consumers' motivations.

key words : blue tourism, tourism value chain, taxonomy of blue tourism resourc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Distribution Management, Tongmyong University of Information Technology.